

겨울철 하우스 감자 재배시 주의사항

내달까지 보온에 힘 써야

농진청, 김제·부안지역 시설하우스 냉해 피해 발생 따라 '1~2월 저온·폭설 대비' 등 주의해야 할 관리방법 소개

최근 갑작스런 온도 저하(-17℃)로 김제, 부안 등 시설하우스의 냉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촌진흥청이 겨울철 하우스감자 재배 시 주의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겨울철 논에 심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하우스 감자를 재배할 때 시기별로 주의해야 할 관리방법을 19일 소개했다.

하우스 감자를 재배할 때 1~2월에는 저온과 폭설에 대비해야 한다. 또, 이른 봄 3~4월에는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 하우스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비해 관리한다.

하우스에 심은 감자는 썩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나 잎썩기가 한창이라는 시기가 1월에 저온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한파로 하우스 온도가 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자 생장이 억제되며 찬 공기에 노출된 잎과 줄기가 얼어 죽기 때문이다.

특히 수확재배 지역에서는 밤사이 정점으로 물이 분사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관리에 유의하고, 수확재배를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온도가 낮을 때 비닐 터널을 설치해 보온에 힘써야 한다.

한파가 예보되면 미리 물대기(관수)를 해 하우스의 상대습도를 높이는 것도 저온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폭설이 쏟아지면 하우스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눈이 쌓이지 않게 관리한다.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에서는 하우스를 여러 채 연결해 내부

간막이를 없앤 연동하우스 재배를 피하고, 오래된 하우스 골조를 미리 보강한다.

이른 봄에는 낮 동안 하우스 온도가 급격히 올라 고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우스 결창(축창)이나 지붕에 난 창을 열어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우스 감자는 줄기가 약하고 웃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맞은 때에 환기를 해주지 않으면 잎부근이 시들어 죽는다.

적절한 환기는 식물체가 말라 죽거나 웃자라는 것을 방지하며, 습도를 낮추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조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자역병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하우스 감자가 한겨울 저온·폭설과 봄철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1~2월에는 보온, 3~4월에는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마음 울린 두번째 '나눔 광고에' 700만이 응답

신협, 지난달 공개 4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716만9531회 함께 진행중인 '어부바 굿즈 증정 이벤트도' 폭발적 인기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지난달 공개한 두 번째 나눔 광고가 지난 18일 기준, 4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716만9,531회를 달성했다.

이번 광고는 소상공인·시니어족·다자녀가정 등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응원하는 신협의 '포용금융' 가치를 담은 것으로, '어부바' 편과 '행운의 7글자' 편 두 가지로 제작됐다. 광고 공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공감을 안기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신협의 나눔광고는 실제로 나눔을 실천하는 선순환형 기업 광고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저소득 영호인을 지원한 첫번째 나눔 광고에 이어, 두 번째 나눔 광고 또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연기자들의 일

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예정이다. 광고에 참여한 배우들 또한 나눔 광고의 뜻 깊은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모델 활동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신협 광고는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다", "어부바를 따라 부르며 한창 새해를 시작해보려 한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기부할 실천한 신협과 광고 모델들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고 공개와 함께 진행 중인 온라인 이벤트 '2021년의 나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 등 실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구매 문의가 쇄도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박규희 홍보본부장은 "나눔 광고는 경제 소외 계층을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물론, 재능 기부를 비롯한 다양한 나눔의 가치를 알리며 나눔의 생활화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평생 어부바라는 신협의 금융 철학과 맞닿아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신협의 활기찬 어부바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차세연 교수, OECD 지속가능농업 연구자문위원 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지속가능농업 공동연구프로그램'(CRP, 이하 공동연구프로그램)의 과학자문기구 위원으로 국내 연구자가 선정되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선정된 위원은 전북대 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의 차세연 교수로 2022년부터 6년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기구 위원 선정은 국내 연구자의 가금류 질병 연구 등 학문적 성과에 대해 국제기구 심사위원들이 인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과학적 방역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 연구자의 국제기구 위원 선정을 계기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연구프로그램 사업 안내로 한국 연구자들의 신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요 농정사안에 대한 연구 등 국제협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연구진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연구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돼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도내 중소·혁신기업 성장 지원

전북조달청-경진원, 협약 체결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19일 오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과 도내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내 우수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및 혁신시제품 발굴 ▲국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상품등록 및 판로지원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경진원은 공공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우수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 및 혁신시제품 후보기업을 발굴해 전북지방조달청에 추천하고, 전북지방조달청에서는 추천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창업·벤처기업 전용물 '벤처나라' 및 혁신시제품 전용 상품물 '혁신장터'에 상품 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해당 업체에 조달업무 교육·자문 등을 통해 국내 공공조달시장 및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통합 공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년도 하반기 이후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2021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위해 총 2,154억원 규모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비대면 지원 및 물류예로 해소 노력이 수출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올해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1,985억원) 169억원(8.5%) 증가된 총 2,145억원을 비대면 방식의 수출지원 및 브랜드K 제품의 판로 확대 등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표 수출지원사업인 수출바우처는 미래차·K바이오 등 혁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전년도 수출 실적에

또한 양 기관은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에 등록된 전북지역 생산 조달물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현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도내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 발굴과 성장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기술 발굴과 성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지원 육성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 소식통



전북농협은 김제 지역에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8일 관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긴급 비상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위한 철통방역 결의

전북농협, 김제지역에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 비상방역대책회의 열어

전북농협(정재호 본부장)은 김제 지역에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8일 관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긴급 비상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 본부장을 비롯한 장경민 경제지주 본부장과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를 초월한 AI 철통방역과, 가용 가능한 소득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AI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전북농협은 지난 13일 정재호 본부장은 "시군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지부장들에게 가축질병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에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및 방역 최 일선에 있는 거점소독시설·공동방제단 근무자 격려방문 등의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주문한 바 있다.

이러한 현장경역을 바탕으로 AI 차단방역을 위해 농협에서 운영 중인 비축기지 방역물품을 활용해 '초동방제용 생석회 10톤, 소독약 300kg, 방역복 200바스'를 발생 즉시

해당지역에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비계열 가금농가 260호에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일환으로 방역용 장화 610켤레도 공급 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고병원성 AI 방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 모든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AI 확산방지 및 종식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정부 그린뉴딜 정책 부응, 농식품기업 발굴·지원"

농협은행 전북본부 새해 첫 기업 현장방문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9일 정읍시 신용육가공 농공단지 소재한 우수 농식품기업 (주)플러스원을 방문하며 신축년 새해 첫 기업 현장방문 행보를 펼쳤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19일 정읍시 신용육가공 농공단지 소재한 우수 농식품기업 (주)플러스원(대표 심재국)을 방문하며 신축년 새해 첫 기업 현장방문 행보를 펼쳤다.

이날 현장방문은 설 명절을 맞이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주)플러스원은 닭·오리 등을 시간당 1만수 이상 가공하여 급네치킨 등에 공급하고 있는 우수 농식품기업으로 지역에서 240여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기도 하다.

장 본부장은 김중덕 플러스원 상무와 최신 육가공설비를 살펴본 뒤 저금리 기업대출 및 농식품 기업금융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기요 본부장은 "우수 농식품기업은 전북지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해 농식품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올해 2154억원 규모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북중기청, 통합 공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년도 하반기 이후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2021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위해 총 2,154억원 규모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비대면 지원 및 물류예로 해소 노력이 수출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올해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1,985억원) 169억원(8.5%) 증가된 총 2,145억원을 비대면 방식의 수출지원 및 브랜드K 제품의 판로 확대 등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표 수출지원사업인 수출바우처는 미래차·K바이오 등 혁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전년도 수출 실적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온라인·비대면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연계 수출전시사업 등 제품소개·바이어상담·수출계약 등 모든 해외마케팅을 비대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물류예로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한다. 선적확보 곤란과 항공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민관협업으로 국제해운선사(HMM) 운항 선박의 중소기업 수출물량 우선 배정을 지원하는 한편, 운송비 감감을 위해 항공·해상 운임 보조도 추진된다.

그밖에 브랜드K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예산을 대폭 확대(지난해 4억원 → 올해 62억

원)하고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를 국내외 각각 1개씩 구축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인프라의 확충이다.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 20개소)는 현지 테스트와 피드백이 합쳐진 '해외 수요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6개소)는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프로그래밍 경제 특화센터(싱가포르·스톡홀름·뉴델리) 지정 등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전북지역에서 20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비대면 수출상담회, 디지털 무역강자 아카데미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